

영혼의 해갈을 서로 흡족하게 채워주며

최규녀 집사

엠마오연합감리교회 밀알목장의 목녀



동네를 한 바퀴

회돌아 산책을 끝내고 집을 바라보며 걸어 들어올 때면 나직한 마음에 소원처럼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예배 처소로 사용된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텐데.' 성경공부나 Q.T 장소로만 여기며 스쳐 지나치던 생각이 현실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매달 한 번 모이던 속회모임이 매주 한 번씩 모이는 가정교회 체제로 탈바꿈하여 초대교회 사역을 회복한다는 목사님의 소그룹 구상이 2006년 말에 새롭게 선포되었습니다. 10년 이상을 제자훈련 하는 교회로 전력하던 리치몬드의 엠마오교회가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삶 공부로 변신되어 가정교회의 소그룹 목장을 충실하게 섬길 자발적인 헌신자를 찾게 됩니다.

선택, 그 귀로에서 주저 없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처럼, 섬김의 헌신을 택해야 할 귀로에서 주저 없이 목자, 목녀 그 생경한 호칭에 익숙해지기로 작정합니다. 때론 사람을 돌아봄이 조금은 분수에 지나친 남편을 부추겨 목자의 가는 길에 수료해야 할 삶 공부를 권유하게 되고, 그도 공연히 아내를 배려하는 듯 하나 매주 있는 목장의 친교로 인한 후환의 불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걱정하는 말투 속에 빠있는 다짐을 알아내곤 했습니다.

1여 년 교인 모두의 기도와 말씀 훈련으로 준비된 가정교회가 14목장으로 구성되어 7월 뜨거운 여름날, 뜨겁게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 목자, 목자의 아내나 남편은 목녀 또는 목동으

로 불리는 초대 엠마오가정교회 예배는 음식을 나누고, 찬양과 말씀 삶 속에 크고 작은 감사의 제목을 들춰내어 나누는 그리고 함께 기도드리며 마지막으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결단과 기도로 끝맺는 예배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가져다 줄 은혜만을 은근히 고대하던 저에게 두 달 즈음 지난 어느 날 열정이 사그라들었는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에 '목장예배에 쏟아 붓는 나의 수고에 아무도 관심조차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내 속에 내 흥분이 바람처럼 빠져 나가자 성령께서 일하시는 광경이 예배 중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속회에도 어렵사리 시간 내어 가는데, 어찌 매주 한 번씩이나 하시던 분들이 목장예배가 기다려진다는 거침없는 고백이 호탕한 웃음과 함께 터져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간증이 되어 번지고 삶의 고락과 애잔한 눈물 나눔이 공기처럼 맴돌아 서로의 마음에 내려앉습니다. 나 혼자만 있는 줄 알았던 외로움이 그녀에게도 있는 줄 알게 되어 등 한 번 더 다독이게 되고 아내에게 무례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진솔하게 자성하는 남편, 그 이야기를 듣는 남편들이 오히려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내용 안에서만 믿었던 성령의 바람이 변화의 바람이 되어 마침내 목장 안에서 생생하게 목격되어졌습니다.

엠마오교회, 하나님 은혜로 태어난 나의 믿음의 처소입니다. 나의 믿음의 걸음을 올바르게 옮겨 서게 한 엠마오교회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같이 애뜻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가정교회를 통해 영혼구원 사역에 소원을 불러 넣어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에 적은 우리의 믿음이 빠짐없이 모아 모아 사용되어져 믿음의 가정이 불어나길 소원합니다.



Photo by Emmaus UMC